난징 상상과 민국문화의 재현

박정희*

〈차 례〉

1. 고도 난징문화의 중층성
2. 예짜오옌의 도시 기억과 상상
3. 경계인의 시선과 난징 상상의 중층성
4. 문화적 상상과 현실적 구성의 교호관계

【국문초록】

문학텍스트를 통한 도시연구에서 핵심적인 것은, 도시가 텍스트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작가의 상상력과 상상방식은 도시의 재현 양상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리고 작품으로 형상화된 도시 상상은 실제 도시의 재구성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민국시대를 다룬 두 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 이 글은 난징에 대한 도시상상과 현실을 재현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난징의 도시기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이를 통해 난징의 어떤 면을 부각하고자 하는지, 도시기억들 간의 혼잡성과 중층성을 통해 난징의 문화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민국시대를 다룬 예짜오옌의 소설과 거량의 소설은 거대역사가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수연구원.

아닌 개인의 일상사에 주목함으로써 난징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두 작가의 소설은 거대역사를 무시하거나 먼 배경으로만 등장시킨다. 예짜오엔은 내부자의 시선으로 자유롭고 화려한 현대 난징을 상상하고 있으며, 거량은 경계인의 시선으로 난징의 혼종성·중층성을 재현하고 있다.

주제어: 도시연구, 도시상상, 난징, 민국문화, 중층성, 신역사소설

1. 고도 난징 문화의 중층성

난징(南京)은 중국 도시 중 베이징(北京), 시안(西安), 뤄양(洛陽)과 더불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중국의 4대 고도(古都) 중 하나이다. 난징은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에 의해 처음 도읍이 된 이후, 東吳(建業), 東晋(建康), 南宋(建康), 南齊(建業), 南梁(建康), 南陳(建康), 南唐(金陵), 明(南京), 太平天國(天京), 中華民國(南京) 등 10개 왕조의 고도(故都)로 빈번한 흥망성쇠를 거듭한 도시이다. 난징은 청나라 말기에 청에 반기를 든 태평천국(太平天國)의 수도였으며, 쑨원(孫文)을 수반으로 한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장제스(蔣介石) 국민정부의 수도이기도 했다. 현재의 난징이 대략적인 윤곽을 잡은 때는 명나라 때인데 명대의 성벽은 지금도 남아 있다. 또한 난징은 역사문화도시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픈 역사인 난징대학살의 현장이기도 하다. 1937년 중일전쟁 시기 일본군에 함락된 후 이 도시는 6주간에 걸쳐 철저히 유린되고 파괴되었다. 이렇듯 난징은 수많은 왕조와 정부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수도로 삼았던 도시이며, 전쟁과 학살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슬픈 도시이기도 하다.

이렇듯 난징은 역사의 부침이 심하여 중층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는 도시이지만, 현재 난징의 도시 이미지는 대체로 난징대학살에서 비롯되었다. 난징대학살은 난징의 역사 중 현재와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이 워낙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중일 양국의 정치·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탓에 중국 국내외 학계의 연구 또한 이 사건에 집중되어 있었다. 1937년의 이 사건은 난징의 도시 이미지를 고통과 슬픔으로 고착화했다.

최근 들어 난징시정부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가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문화산업을 이용하는 것인데, 특히 영상산업을 지원하여 중국 전체에 유포함으로써 난징의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려 하고 있다. 문화산업이 특히 중시되는 현대에서, 문화는 도시역사의 축적물이면서 도시정신의 결과물이고 도시발전의 동력·원천이라 할 수 있다. 난징시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1)]

난징시정부의 지원 하에 난징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와 TV드라마는 중국 전국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되고 있다.[2)] 그 중 대표적인 영화로는 <南京的那个夏天>, <辛亥革命>, <廬山戀2010>, <多大事啊> 등이 있고 TV드라마로는 <利劍>, <決戰南京>, <推拿>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영화와 드라마들은 난징대학살을 새로이 조명하거나 난징의 다른 역사적 사건으로 대체함으로써 난징의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 가령, 난징대학살의 참혹상을 기록하는 영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데, <金陵十三釵>, <南京!南京!>, <拉貝日記>, <東京審判>

---

1) 慈祥, 「南京影視現象分析与品牌化打造－－關于南京影視創作与傳播情況的調研報告」, 『文化産業研究』 5, 南京: 南京大學國家文化産業研究中心, 2012, p. 97-98.

2) 鄭晋鳴·陸金玉, 「南京：以文化重塑气質」, 『南京日報』, 南京日報社, 2010. 8.31.

등이 그것이다. 난징의 문화산업은 난징대학살의 상처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난징을 애국주의 교육도시로 재편하려 한다. <南京的那个夏天> 역시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난징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과 정립하고자 하는 도시 이미지가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의 감독 위쥔하오(虞軍豪)는 영화 제목 중의 여름(夏天)은 2007년의 여름으로 난징대학살의 70주년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의도는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고난의 역사도시 난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보통시민의 인문정신을 담아내는 데 있었다고 설명한다.[3] 이 영화는 난징 소시민의 따뜻한 인정과 난징의 여러 명승지를 보여줌으로써 난징의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경관을 전시한다. 난징 출신의 배우가 난징어를 사용하는 이 영화는 난징의 자연경관과 난징의 성곽을 주인공으로 삼은 난징 선전 영화라 할 수 있다. 고통과 슬픔을 난징의 도시 이미지로 고착시켰던 역사적 사건은 난징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연 등으로 인해 이미 치유된 듯 그려진다. 영화 <多大事啊> 역시 난징 소시민의 생활을 소소하고 따뜻하게 그린 영화다. 제8회 마오뚠(茅盾) 문학상(2011)을 받은 비페위(畢飛宇)의 소설『推拿』를 드라마로 만든 <推拿>는 맹인 안마사를 중심으로 난징의 소시민 생활을 그린다.

난징을 배경으로 만든 TV드라마 대부분은 1945년 8월 15일 항전 승리 후 국·공 양당의 투쟁을 그린다. 당시 난징 공산당 지하당원이 국민당과 투쟁에서 승리하여 난징을 접수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드라마로는 <利劍>, <決戰南京> 등이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것은 민국시대를 적극적으로 소환하는 경향이다. 이허로(頤和路), 닝하이로(宁海路)와 강쑤로(江蘇路), 총독부, 중산릉 등 민국시대 건축군이 지금도 주요 관광지로

3) 賈儒,「充滿友愛的<南京的那个夏天>: 電影<南京的那个夏天>觀摩研討會記要」,『中國電影報』, 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 2010.1.17.

도시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고통의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영광의 시대라는 점, 타이완의 관광객에게 소비될 수 있는 장제스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민국시대를 적극적으로 소환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항전 이후를 다룬 영상물들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관통되고 있기에 난징에 대한 도시 상상 또한 대단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민국시대 난징에 대한 상상은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고 풍부하다. 난징이 상상하는 도시 이미지·도시 정체성은 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더욱 자유롭게 제기된다. 따라서 난징 상상과 재현의 방식·내용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 글은 민국시대의 난징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집중한다.

또한 이 글은 영상물보다는 문학작품이 상상하고 재현해내는 난징의 이미지·도시 정체성을 탐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물은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인 만큼 상상의 내용과 형상화 역시 많은 제약과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문학작품이 재현하는 도시 상상과 재현은 시대의 총체성에 기반을 둔 작가 개인의 상상이며 구체적인 영상매체가 아니라 개념적인 언어매체를 통해 제공되기에 그만큼 자유롭고 제약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영상물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재현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현력의 현실적 제약이 작가의 상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반면, 언어만으로 구성되는 문학작품은 영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현력이 열등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상상력의 확장을 보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문학텍스트를 통한 도시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도시를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재현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시와 작품의 상호 영향관계와 그 효과에 주목하는 것 즉 도시는 텍스트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작가의 상상력과 상상방식은 도시의 재현 양상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리고 작품으로 형상화된

도시 상상은 실제 도시의 재구성에 어떻게 다시 개입하는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 이 글은 민국시대를 다룬 두 작가의 소설 즉 예짜오옌(叶兆言)의 『一九三七年的愛情』 등 작품과 거량(葛亮)의 『朱雀』을 중심으로, 난징 정체성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상상되고 재현되는지, 난징과 작가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상상과 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을 살피고자 한다.

2. 예짜오옌의 도시 기억과 상상

난징의 문학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중세기의 좌사(左思)의 『吳都賦』, 유신(庾信)의 『哀江南賦』, 공상임(孔尙任)의 『桃花扇』 그리고 오경재(吳敬梓)의 『儒林外史』 등은 모두 난징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리고 1920, 30년대 주즈칭(朱自淸), 위핑보(兪平伯) 등이 친화이강(秦淮河)[4]을 배경으로 각자 「槳聲灯影里的秦淮河」의 글을 씀으로써 중국 현대문학의 난징 상상은 시작되었다.

당대중국의 난징 작가 중에서 난징 서사로 가장 이름이 높은 이는 예짜오옌(叶兆言)[5]이다. 그는 난징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난징의 공간과 역사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일찍부터 자신의 다양한 도시 상상・도시 서사를

---

4) 친화이강(秦淮河): 양쯔강의 지류로 난징 시내를 흐르는 강이다. 당대(唐代) 시인 두목(杜牧)이 「泊秦淮」를 지은 후 친화이강이라 불린다. 난징 역사문화는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5) 예짜오옌(叶兆言): 1957년 난징 출생. 저명한 작가. 南京大學 中文系 졸업(1982), 南京大學 中文系 碩士 졸업(1986). 金陵職業大學 교수와 江蘇文藝出版社의 편집인을 거쳐 지금은 江蘇作家協會의 전업작가. 1980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 중편소설집으로 『艷歌』, 『夜泊秦淮』, 『棗樹的故事』가 있고, 장편소설로는 『一九三七年的愛情』, 『花影』, 『花煞』, 『別人的愛情』, 『沒有玻璃的花房』, 『我們的心太頑固』 등이 있다. 그 외 산문집으로 『流浪之夜』, 『旧影秦淮』, 『叶兆言散文』, 『雜花生樹』 등이 있다.

허구적 서사장르인 소설로 전개했는데, 그의 작품에 재현된 난징 상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花影』[6]과 『花煞』[7] 등은 난징을 친화이강을 중심으로 한 풍류와 퇴폐의 중국 전통도시로 상상하며, 『一九三七年的愛情』[8]에서는 1930년대의 난징을 번화하고 자유로운 현대도시로 기억한다. 그리고 『捕捉心跳』[9] 등의 작품은 현재의 난징을 세속적이고 자질구레한 일상으로 가득 찬 도시로 재현한다.

『花影』, 『花煞』 등의 도시 서사는 외부 공간에 대한 흥미가 아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관심을 근원에 두고 있다. 친화이강가의 유서 깊은 저택에 대한 작가의 특별한 감정은 그의 상상을 자극했는데,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가족의 숭고한 역사가 아닌 가족의 야사였다. 그에게 있어 깊은 저택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그곳에서 발생하는 권력투쟁 등의 각종 사건들은 사실 인간 내면의 다양한 욕망들의 발현태였다. 그는 난징이라는 지리공간을 빌어 인간의 복잡다양한 내면세계를 상상하고 재현했다. 또한, 『老南京』[10]에서는 만청(晚淸), 민국(民國)부터 1949년 이후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관련된 도시의 변천사 혹은 정치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을 서술하면서 난징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상한다.

이 장이 특히 주목하는 작품군은 1930년대 민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다. 그가 민국시대의 난징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민국풍을 강조하는 현재의 난징 도시계획의 의도 혹은 취지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재현하는 민국시대 난징의 분위기는 『夜泊秦淮』에서 잘 드러난다.

---

6) 叶兆言, 『花影』, 南京: 南京出版社, 1994.
7) 叶兆言, 『花煞』, 北京: 今日中國出版社, 1994.
8) 叶兆言, 『一九三七年的愛情』,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6.
9) 叶兆言, 『捕捉心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10) 叶兆言, 「老南京」,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8年.

> 난징은 훌륭한 역사교과서이기에 이 도시를 통해 중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다. 난징의 유적은 인문학적 색채가 농후하며 자연경관은 아름답다. 그래서 난징은 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도시의 강점은 그 역사와 독특한 인문에 있다.[11]

"성남(城南)은 라오난징의 상징이다"[12]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성남[13]을 난징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공간으로 해석했다. 산문「城南」에서 예짜오옌은 자신이 전해들은 옛이야기 즉 라오난징(老南京)의 푸즈미야오(夫子廟)와 친화이강 주변에서 벌어진 일화들을 이야기한다. 이 산문은 예짜오옌이 친화이(秦淮)문화를 이해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는 라오난징 시절의 강남(江南)[14]생활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강남은 그가 역사를 상상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고 거대한 지리공간이 되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그의 상상과 서사는 그곳 시정생활의 각종 세태를 그리는 데 집중된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예짜오옌의 난징 상상과 서사화는 자연히 강남 선비들의 풍류와 기개를 재현하게 되어 그의 소설들은 심미적이고 전설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의 심미적 경향과 소설로 재현된 강남의 문화는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예짜오옌은 친화이문화의 공간과 성격을 라오난징의 상징적 기호로 상상하고, 도

---

11) 叶兆言,「南京，歷史和人文」, http://www.longhoo.net/mbjd/2010-06/02/content_3280339.htm

12) 叶兆言,「城南」,『南京人・續』,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p. 59. "城南是老南京的象征."

13) 난징의 성남(城南)은 오래전부터 난징의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난징에는 구건축물이 많은데, 성북(城北)에는 민국시기의 건축물이 많다면 성남(城南)에는 명청시대의 건축물이 많다. 성남을 대표하는 곳은 친화이강 주변 일대와 푸즈미야오이다.

14) 여기서의 강남(江南)은 자연지리와 인문문화가 합해진 개념으로, 양쯔강 이남의 자연과 문화를 가리킨다.

시 공간과 인물 성격·운명의 교호 관계를 재현하는 데 관심을 쏟음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해갔다. 그의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게 발현된 소설은 "夜泊秦淮" 계열 소설[15]로 명명되었는데, 이 소설들은 지역 특색을 전시하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이 소설들은 주로 민국시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육조고도(六朝古都)의 난징과 친화이강 주변의 일화 등을 묘사했다. 민간의 시선으로 강남과 친화이강의 역사를 재해석한 그의 소설은 지역적 특색을 농밀하게 담아냈고 오랜 문화적 운치를 재구성해냈다. 물론 이 문화적 운치는 친화이강 주변 문화풍습과 그 일화에 대한 예짜오옌의 친숙함과 애호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강남의 운치를 작품 속에서 재현해내기 위해 주로 차용한 문화적 기호는 찻집, 술집, 기원(妓院), 놀잇배(畵舫), 정원 등이었다. 이 기호들은 그가 과거의 친화이강을 상상할 수 있는 공간적 근거였다.

1930년대 난징의 서비스산업은 난징 인구의 절반 정도가 이 업종에 종사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민국시기 난징의 오락은 전통과 서구 즉 중·서가 융합된 것이었다. 당시 난징에는 영화관, 당구장(彈子房), 무도장(舞廳) 등 서구식 오락공간이 보급되어 있었으며 난징의 전통적인 오락문화인 음주, 음차, 친화이강에서 놀잇배를 타는 오락 역시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 이 중 전통적인 찻집과 술집은 난징의 대로와 작은 골목에 퍼져 있어 난징 특유의 도시 풍경을 형성했다. 『首都志』 통계에 의하면, 민국(民國)시기 난징에는 음식점이 1,151집, 찻집이 300집 있었다.[16] 음주, 음차는 친화이강 고유의 생활문화로 민국시기의 난징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

15) 예짜오옌의 「狀元鏡」, 「十字鋪」, 「半邊營」, 「追月樓」 등이 여기에 속한다.

16) 南京史志編輯部, 『首都志』(下), 南京: 南京古舊書店南京史志編輯部, 1985 (본 서는 南京正中書局 1935年版을 南京市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에서 영인한 것임), pp. 1060-1061.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예짜오옌은, 항상 친화이강에 와서 놀잇배를 타고 각종 찻집을 출입하는 주인공을 통해 난징의 전통문화를 재현한다. 그의 소설에서 찻집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곳은 사람들의 우연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각종 소문이 생산되고 유포되는 곳이다. 찻집은 사적인 교류가 진행되는 집과는 달리 일종의 공공문화·오락공간이다. 찻집 등은 예짜오옌의 1930년대 난징 상상과 서사화 방식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이다.

예짜오옌이 민국시대의 난징을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또 다른 소설『一九三七年的愛情』에서 잘 드러난다. 이 소설은 현대 도시의 낭만을 극대화하여 재현했다. 소설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37년이며 공간적 배경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이고 중국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지정·지경학적 위치가 강조된 난징이다. 소설이 묘사한 1937년의 난징은 비록 전쟁과 국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고 도처에서 항일구국의 구호가 들리지만 여전히 환락과 쾌락에 빠진 도시이다. 이 도시의 낭만은 국가의 멸망, 개인의 생사도 개의치 않을 정도다. 이 소설은『收獲』(1996年 4期)에 실렸는데 1997년에 출판된 단행본『一九三七年的愛情』의 前言에서 작가는 난징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다.

> 내가 고도 난징의 1937년을 응시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다. 고도 난징의 화려한 난파선은 일찍이 역사의 폐지더미 속으로 사라졌다. 상황도 변했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 고도 난징은 마치 나이 들어 쇠락한 여인처럼 다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 이 오랜 도시는 민국시기에 순식간에 번화했고 강렬한 풍파를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먼지처럼 쌓인 역사 속에 방치된 운명을 회상하며 슬퍼한다. 사람들은 난징을 사라진 중화민국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기념한다. 난징은 다만 지난날의 표상일 뿐이다. 난징은 거대한 역사적 역량을 배태했던 그 옛

날의 명칭일 뿐이다……17)

1937년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배경으로 한『一九三七年的愛情』은 소설이라는 장르 성격이 규정하듯 허구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작품 전체에 걸쳐 매우 풍부한 역사적 사료를 인용하고 있다. 허구적 서사는 이 역사적 사료들과 맞물려 사실성과 진실성을 획득한다. 난징의 거리 풍경부터 당시 정부의 정책, 당대의 실제 인물들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열거함으로써, 1937년의 난징을 그대로 재현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한다.

작가는 이 소설의 집필과정에 대해 언급하면서, "난 매번 도서관에 가서 고서와 옛 신문, 옛 잡지들을 보았다. 오래된 사료들은 마치 내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18)고 고백한다. 한편 소설의 후기에서는, "소설을 결국 이렇게 쓰게 되리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다. 나는 본래 기실체(紀實体)의 소설을 쓸 생각이었고 고도 난징의 1937년 편년사를 쓰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다"19)고 애초의 창작 의도를 밝히기도 한다.

작가는 두 번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원래 계획은 비록 소설 양

17) 叶兆言,『一九三七年的愛情・寫在前面』, 江蘇文藝出版社, 1997. "我的目光凝視着古都南京的一九三七年, 已經有許多年。古都南京艘華麗的破船, 早就淹沒在歷史的故紙堆里。事過境遷, 斗轉星移, 作爲故都的南京, 仿佛一个年老色衰的女人, 已不可能再引起人們的青睞。這座古老城市在民國年間的瞬息繁華, 轟轟烈烈的大起大落, 注定只能放在落滿塵埃的歷史中, 讓人感嘆讓人回味。南京是逝去的中華民國的一塊活化石, 人們留念的, 只能是那些已成爲往事的標本。南京的魅力只是那些孕育着巨大歷史能量的古旧地理名称……"

18) 같은 책, p. 343. "我一次次地去圖書館看旧書, 翻閱当年的旧報紙旧雜志, 那些陳旧的東西, 讓人有一种走進歷史的錯覺。"

19) 같은 책, p. 342. "小說最后寫成這樣, 始料未及, 我本想寫一部紀實体小說, 寫一部故都南京的1937年的編年史, 結果大大出乎以外。"

식을 빌지만 난징에 관한 역사 자료·문헌을 참고하여 사실에 근거한 역사서를 쓰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사(正史)가 아닌 개인의 상상력이 충만한 야사(野史)라는 것이다. 그런데 애초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작가에게 있어 정말 의외였을까. 예짜오옌의 다음 발언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1937년의 난징을 주시할 때 복잡한 감정이 마구 솟아올랐다. 당시의 번화함을 재현하려는 과도한 바람 따위는 내게 없었지만, 이른바 민국의 흥성한 시대인 1937년은 그 자체로 수많은 허황된 이야기를 지니고 있었다. 1937년은 다만 눈앞에서 흩날리는 구름과 연기일 뿐이었다. 나의 시선은 과거의 특정한 시대를 배회하였고 소설가인 나는 역사가들이 역사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단지 소소한 단락과 대변혁 시대의 슬프고 변변치 못한 작은 이야기들뿐이었다.[20]

중국 사회주의 시기의 역사소설은 역사발전 방향의 필연성을 예측하여 역사의 우연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했다. 특정 시기의 역사적 진실은 거시적인 역사발전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 진실과 성격이 해석되었다. 그러나 기성 체제와 제도 속의 역사가 혹은 관방 역사가와는 접근방식과 감정이 달랐던 그에게 있어, 『一九三七年的愛情』이라는 소설은 의외의 결과가 아니라 작가가 의도한 서술 전략의 필연적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예짜오옌의 소설은 진실의 역사라는 것에 의문을 던지면서 거대역사가 은폐한

---

20) 叶兆言, 『一九三七年的愛情·寫在前面』, 江蘇文藝出版社, 1997. “我注視着一九三七年的南京的時候, 一种极其复雜的心情油然而起。我沒有再現当年繁華的奢望, 而且所謂民國盛世的一九三七年, 本身就有許多虛幻的地方。一九三七年只是過眼烟云。我的目光在這个過去的特定年代里徘徊, 作爲小說家, 我看不太清楚那种被歷史學家称爲歷史的歷史。我看到的只是一些零零碎碎的片段, 一些大時代中的傷感的沒出息的小故事。”

개인의 역사에 주목한다. 미시역사를 배제한 거대역사에 대한 작가의 자괴감은 그의 작품 「壯元鏡」, 「追月樓」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짜오옌의 "夜泊秦淮"계 열 소설에서 역사 발전을 결정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제나 우연이다. 그는 중심의 거대역사 서사에 대항하여 이를 해체하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그의 소설은 역사의 진실성, 사회역사적 가치에 대한 성찰과 해체를 민간의 시선으로 진행했는데, 이 때문에 신역사소설(新歷史小說)이라고 불렸다. 예짜오옌의 신역사소설의 가치는 역사의 '진실'이라는 단단한 틀을 깨트리고 역사라는 종이 위에 다른 장면을 그렸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은 '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대의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개인사였다.[21] 그의 신역사소설은 기존의 "일체의 역사 모두가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욕망의 역사"로 전복되도록 만들고자 했다.[22]

그의 난징 상상과 서사에 있어 역사적 사실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예짜오옌은 문헌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대량으로 사용하지만, 이 역사적 사실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거하여 재배치되고 구성되어 마침내 새로운 난징 형상의 자료로 활용된다. 역사적 사실은 난징의 낭만적 전설을 재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작가의 난징 상상과 서사화가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주목하지 않고 작가의 난징 상상 방식과 의도에 집중할 때 작품과 공간의 영향 관계가 드러난다. 작가가 재현한 1930년대의 난징은 비록 위기에 처해 있지만 번화하고 화려하며 분위기는 자유롭다. 난징에 대한 예짜오옌의 상상은 국가의 멸망과 개인의 생사는 고려하지 않는 채 과도한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런데 관방

---

21) 黃强, 「從民間視野反思歷史－－讀叶兆言的"夜泊秦淮"系列小說」, 『時代文學』 7, 山東省作家協會, 2010, p. 57.

22) 曹文軒, 『20世紀中國文學現象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p. 220.

역사는 1937년의 난징을 국민당 암흑통치 하의 궁핍함만으로 성격을 제한하면서 재현했다. 따라서 작가의 이러한 난징 상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관방의 거대역사가 난징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저항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작가는 관방 역사가 재현한 난징의 모습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상상에 의거하여 자유롭고 화려한 현대 난징을 창조해냈다. 예짜오옌의 작품은 실제의 역사 위에 허구를 완벽하게 통합함으로써 거대역사의 난징 상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예짜오옌이 재현한 난징은 장아이링(張愛玲)이 묘사한 난징과도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장아이링의 『半生緣』[23]는 당시의 수도 난징을 오래되어 허름하고 우울하고 전통적인 곳으로 묘사한다. 그녀에게 있어 난징은 번화하기는커녕 황량한 도시다. 그러나 『一九三七年的愛情』은 1937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 낭만적인 도시공간의 일상생활에 주목한다.

작가는, 전쟁에 매몰된 역사 속에서 사랑에 눈 먼 띵원위(丁問漁)와 위위엔(雨媛)의 열정적인 사랑을 찾아낸다. 소설 속 마지막 시간은 1937년 12월 12일 오후이다. 그 날 석양이 질 때 띵원위는 일본군의 총탄에 죽고 소설은 끝난다. 그 다음날인 12월 13일은 실제 역사에서 일본군의 만행으로 온 도시가 피로 물드는 난징대학살이 감행되는 날이다. 띵원위의 사랑과 소설이 끝나는 시점은 난징대학살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다. 작가는 띵원위의 개인사를 그리면서도 그것을 난징의 거대역사와 맞물려놓고 있다. 작가의 난징 상상은 무목적적인 퇴행성과 낭만성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라, 거대역사에 대한 저항 그리고 거대역사의 무자비한 위력에 대

23) 『半生緣』은 장아이링(張愛玲)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 원제목은 『十八春』이다. 1951년에 초고를 탈고했으나 이후 장아이링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정치적 색채가 농후한 결말부분을 수정하여 『半生緣』로 제목을 바꾸어 출간하였다.

한 고백 등을 내포한다. 신역사소설의 이런 양면성은 난징이라는 구체적인 도시를 상상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예짜오옌의 신역사소설류가 묘사하는 애정에는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다. 전통의 해체 속에는 기억이 내포되어 있으며, 청산과 건설이 교차되면서 마구 뒤얽혀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런 심미적 경향은 신역사소설의 특징 즉 역사와 현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표현한다.[24]

그는 1935년 전후의 난징 도시건설운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국시대 난징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난징의 녹화는 여전하고 고전적 의미와 낭만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 사람을 즐겁게 한다. 마치 도시의 푸른 섬에 있는 동시에 현대화된 도시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도로에 차가 끊임없이 오가고 매우 번화하지만, 조리정연하여 조금의 낙후된 흔적도 찾을 수 없다."[25] 1930년대 난징의 수도 건설은 장제스 정부를 위한 것이었지 도시 난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 예짜오옌의 감상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난징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작품 속의 난징을 거대역사와 외부인의 시선에 대한 저항의 공간 나아가 그의 상상과 거대역사·외부인의 상상이 갈등하는 공간으로 생산하고 있다.

---

24) 陳嬌華, 「解构中蘊涵着怀旧:從愛情書寫角度考察叶兆言的新歷史小說」, 『当代文壇』 5, 四川省作家協會, 2008, p. 96. "叶兆言新歷史小說中的愛情描寫是傳統中摻雜現代, 解构中蘊涵怀旧, 呈現出消解与构筑相交織的錯綜夏雜現象。事實上, 這一審美趨向吻合了新歷史小說的寫作特征, 体現着新歷史小說對歷史与現實的矛盾統一態度."

25) 叶兆言撰文, 『老南京』,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8, pp. 58-59. "南京城的綠化依旧, 看上去旣帶有古典意味和浪漫情調, 讓人賞心悅目, 讓人仿佛置身于一座城市的綠島上, 又同時是一座現代化十分完善的城市, 車水馬龍, 有條不紊, 一点也見不到落后的痕迹。

3. 경계인의 시선과 난징 상상의 중층성

난징의 숱한 역사 중에서 1930, 40년대 민국시대의 난징을 문학 작품으로 재현한 또 다른 작가로는 장아이링(張愛玲)과 장헌수이(張恨水) 등이 있다. 장아이링의 조부모는 난징에 거주하였고 부모는 난징 출생이었기에, 장아이링은 어릴 적부터 난징 문화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그래서 장아이링의 작품에는 난징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 그녀의 소설 『小艾』[26], 「相見歡」[27] 등은 난징에 관한 글이고 소설 『半生緣』(원제목 『十八春』)은 상하이와 난징을 배경으로 한다. 난징이 장아이링의 창작 시야에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녀의 난징 체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난징에서 거주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학계는 그녀의 난징 거주를 개연성 있는 추측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아이링은 상상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라는 점이 그녀의 난징 생활 추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28]

장아이링은 상하이를 묘사하기 위해 다른 도시를 타자의 공간으로 소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홍콩과 난징을 타자의 도시로 놓을 때 그녀가 두 도시를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다르다. 장아이링은 상하이를 이해하고 묘사하기 위한 매개체적 공간으로 홍콩을 호출한다. 이때 홍콩은 뿌리를 제거 당한 이주의 공간으로 묘사되며 이 도시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차갑다. 그러나 난징을 서술하는 장아이링의 시선은 이와는 다르다. 『半生緣』의 난징 또한 궁극적

---

26) 장아이링의 『小艾』는 1951년 11월 4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상하이 『亦報』에 연재되었다. 張愛玲, 『小艾』,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87.

27) 張愛玲, 「相見歡」, 『惘然記』, 广州: 花城出版社, 1997.

28) 唐偉超 · 史麗君, 「揭秘張愛玲与南京的不了情緣」, 『現代快報』, 現代快報社, 2007.10.31. 金萍, 「傳奇才女張愛玲的"南京緣"」, 『金陵瞭望』 12, 南京報業集團, 2004. 참고

으로는 상하이를 묘사하기 위한 매개체적 공간으로 호출된 것이어서, 소박하고 고풍스럽고 보수적인 성격, 착실함과 진지함 등과 같은 난징의 성격은 상하이의 통속성과 융통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작품상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난징은 개성이 뚜렷한 주체적인 도시로 묘사된다. 『半生緣』이 요구하는 난징의 성격과 장아이링 개인이 감각하는 난징의 성격은 일치하지 않아서, 마침내 작품에서는 중층적인 차원의 혼종적인 도시로 재현되는 결과를 빚는다.

장헌수이(張恨水)는 일생을 도시 서사에 집중한 작가다. 그는 베이징, 충칭, 톈진, 상하이 등의 도시에 대해 서술하였고 베이징과 난징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1936년 상하이에서 난징으로 이사한 후 1937년 말까지 거주하다 충칭으로 옮긴다. 그는 난징을 떠난 후 난징을 배경으로 한 소설 『秦淮世家』를 창작하였다.

장헌수이의 작품이 재현하는 1930년대의 난징은 번화와 소란을 피하여 머무르는 공간, 고풍스러움과 평안함의 공간이다. 어떤 의미에서 장헌수이가 난징을 묘사하는 태도는 장아이링과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역시 상하이와의 대조라는 방식으로 난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이 재현한 1930년대의 상하이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하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인 반면 난징은 아직 물질문명에 의해 타락되지 않았고 혁명적 주류담론이 시민의 의식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했으며 조용한 생활이 유지되는 도시이다. 그의 작품은, 선량한 난징 여인이 상하이에 가면 병사하거나 타락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며 난징의 비극은 대부분 상하이에서 온 관료와 은행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근대화의 총아인 도시의 물질적 욕망, 전통 도덕윤리의 상실을 비판했던 장헌수이는 일상성, 향토성, 전통문화 등을 난징의 특징으로 부각함으로써 난징을 현대 물질문명과 대비되는 순수한 전통·향수의 공간으로 재현한다.

장아이링과 장헌수이가 난징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하나는 동시대 상하이와의 비교를 통해 난징은 순수한 과거의 공간으로 성격 규정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두 작가의 시선이 외부인의 그것임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대조를 통해 발견된 난징의 성격은 작가 자신의 직접 경험으로 인해 난징의 핵심적인 지역성 혹은 난징 지역성의 전체인 양 유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외부자의 시선이 내부자의 시선이라는 외피를 입는 순간 두 작가가 재현한 난징은 작가가 선택적으로 상상하고 재현한 난징이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의 난징인 듯한 효과를 불러온다.

이런 점에서 2000년도에 발표된 거량(葛亮)[29]의 장편소설 『朱雀』[30]이 보여주는 난징 상상은 전혀 다른 입각점에 서 있다.

> 모두가 1937년에 발생한 일에 대해 알기 때문에 난징을 떠올리면 그 과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나는 선배 작가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이 우리보다 우세한 점은 바로 당신들은 역사의 목격자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역사에 대한 당신들 증언의 수용자일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역사를 쓸 땐 증언이 핵심어가 되겠지만 우리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핵심어는 상상이다.[31]

30대 초반의 거량은 이엔롄커(閻連科)와 바이이예(白烨) 등과 함께 자신의 작품 『朱雀』을 논하면서, 자기 세대의 작가들은 윗세대

---

29) 거량(葛亮): 1978년 난징 출생, 현재 홍콩에 거주. 香港浸會大學 中文系 교수. 작품으로는 『七聲』, 『謎鴉』, 『相忘江湖的魚』, 『繪色』 등이 있다. 장편소설 『朱雀』로 "亞洲周刊2009年全球華人十大小說"상을 받았다.

30) 葛亮, 『朱雀』, 北京: 作家出版社, 2010.

31) 葛亮, 「2010香港書展葛亮精彩演講」, http://book.sohu.com/ 2010.07.26. "因爲大家都知道37年發生的事情，想南京沒有辦法跳躍過去。前輩作家朋友講到，其實你們對于我們的优勢就是你們是一代歷史的見証者，而我們是被你們見証的這段歷史的接納者。所以說對你們而言，寫作歷史的關鍵詞是在見証，而對我們不一樣，我們是想象。"

작가의 창작 시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아버지 세대의 작가는 역사의 경험자와 증언자로 역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면 자기 세대의 더 큰 공간은 상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상의 공간은 직접적으로 그 역사를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욱 자유롭게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朱雀』은 난징에서 펼쳐진 중국 현대사의 정치동란을 배경으로 3세대에 걸친 여성들의 고난을 그려낸다. 각 시대의 난징을 살아가는 남녀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낭만으로 역사와 직면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불사한다. 고대신화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 '朱雀'은 화염에도 살아남는다는 봉황의 화신이며 난징의 상징 중 하나이다.[32] 거량은 '朱雀'을 소설의 제목으로 차용함으로써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난징은 불멸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거량은 난징을 상징하는 '朱雀'을 책 제목으로 삼아 이 도시의 기원과 고난의 역사를 재구성하였다.

『朱雀』은 새 천년을 맞이하는 해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화교 청년 쉬팅마이(許廷邁)가 아버지의 고향인 난징으로 유학 오면서 시작된다. 그는 친화이강의 푸즈미야오에서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여자 청난(程囡)을 만나고, 3세대에 걸친 전설적인 운명의 서사가 전개된다. 1923년 여자아이 예위즈(叶毓芝)는 아버지를 따라 난징에 와서 가업을 잇는다. 1936년 예위즈(毓芝)와 일본인 아쿠타가와(芥川)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녀는 아쿠타가

32) 고대 중국신화에서 주작(朱雀)은 봉황의 화신으로 화염에도 멸하지 않는다. 중국 고대 동진(東晋) 시기 주작은 이미 난징의 상징물로 등장했다. 당시 친화이강에 24개의 배다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장식이 화려한 곳이 주작항(朱雀航)이었다. 이후 주작항의 번화함은 사라졌지만 당대(唐代) 시인 류우석(劉禹錫)이 "朱雀橋邊野草花, 烏衣巷口夕陽斜"라는 유명한 시구를 남김으로써 주작은 난징을 상징하는 엠블럼(emblem)의 하나가 된다.

와의 여자아이를 낳는다. 예위즈가 난징대학살 중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자 기녀인 청윈허(程云和)는 예위즈의 딸을 기르게 되면서 청이추(程憶楚)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1950년대 대학생이 된 청이추는 말레이시아 화교 루이웨이(陸一緯)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루이웨이는 우파로 비판을 받아 베이따황(北大荒)으로 떠나며, 청윈허는 비판에 몰린 나머지 자살하게 되고 청이추는 그녀를 겁탈한 노동자와 결혼한다. 문혁이 끝나자 과부가 된 청이추는 과거의 연인 루이웨이와 만나지만 그는 이미 처자가 있는 사람이다. 이후 소설은 청이추와 루이웨이의 딸인 청난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다. 『朱雀』은 중국현대사의 격동적 흐름 속을 살아간 3세대 여성, 예위즈(청윈허), 청이추, 청난의 반복되는 비극적 운명을 통해 난징을 그리고 있다.

거량은 작품의 창작 방식과 관련해, "나는 책(『朱雀』-인용자)의 후기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어떤 시각으로 성찰하는냐가 역사를 대하는 실제 핵심이다"[33]고 발언한다. 거량이 『朱雀』에서 이런 긴 폭의 역사를 재현할 때 맞게 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발언대로 역사를 상상하는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소설은 결국 쉬팅마이라는 화교를 주인공이자 초점화자로 선택함으로써 경계인의 시선을 통해 난징을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거량의 이런 서술 전략은, 내부자의 시선과 기억으로 자신의 도시를 일방적이고 주관적으로 고백하는 방식을 거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왜 이렇게 썼는가? 우리 세대는 반드시 자신 외의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난징은 나의 고향이기에 감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다른 많은 은폐되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할까봐 걱정되었다."[34]

---

33) 葛亮, 앞의 글. "實際上我在這本書的后記也有寫, 就是你怎么樣以一个什么樣的身份去審視實際上成爲你看待這段歷史的關鍵。"

34) 鐘明, 「葛亮 : 小說『朱雀』摩挲南京記憶」, http://culture.china.com.cn/book/2010-

외부인이면서 내부인을 초점화자로 선택한 장아이링과 장헌수이와는 달리,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거량은 내부인이면서 외부인의 시선을 견지하려 했고 그 결과 경계인이라는 시선을 획득한다. 경계인이라는 시선이 두 작가와 거량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두 번째 원인이다. 경계인의 시선은, 동시대 다른 도시와 난징의 비교로 향하는 대신 현재의 난징과 민국시기의 난징을 교차함으로써 민국시기 난징의 운명과 정신문화가 지금의 난징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난징의 반복되는 비극적 운명, 그리고 이 도시의 남성과 여성이 운명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변하지 않는 난징 정신문화의 양면성을 재현한다.

"『朱雀』을 집필할 때 작가는 쉬팅마이라는 외래자의 형상을 배치하고 낯선 시선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다"[35]는 평가처럼, 외부자인 쉬팅마이는 고도 난징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도시에서 오래 거주한 아버지를 상상한다. 그리고 긴 역사가 각인된 거리를 거닐면서 도시의 전통문화에 빠져들고 거리와 난징어, 난징의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집의 이미지는 인간에게 안정의 근거와 그 환상을 제공하는 이미지들의 집적물이기에,[36] 초점화자 쉬팅마이의 감정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안정과 환상을 다시 체험하고 반추하는 작가 거량을 반영하고 있다. 거량은 "의식의 깊은 곳에서부터 난징은 내 창작의 중요한 귀착점이다. 나는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난징에 관한 소설을 쓰고자 했다. 난징에

09/13. "我爲什么要這么寫？我覺得我們這一代人應該給自己另外一个視角去審視自己的机會，南京是我的家城，很大層面上我担心自己會被家城這种情感的元素所遮蔽，很多事情看不見。"

35) 劉莹, 「想象与記憶的重奏:葛亮的南京書寫－－以『朱雀』爲例」, 『海南師范大學學報(社會科學版)』 1, 海南師范大學, 2013, p. 30. "因此在『朱雀』的叙事中，作家設置了許廷邁這樣一个外來者的形象，期望以'陌生化'的視角，重返'家城'。"

36)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p. 132.

대한 내 감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한 소망을 이제야 이룬 것 같다. 『朱雀』을 쓰고 나자 내 마음은 빚을 갚은 것과 같았다", "나는 어떤 방식이 적당할지 계속 모색했는데 그 결과는 '귀가'의 방식이었다"[37]는 말로, 난징에 대한 애착과 도시 관찰의 태도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외부자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경계인이라는 자신의 위치감각을 보여준다.

『朱雀』에서 거량의 경계인적·중층적 성격은 두 남성 쉬팅마이와 야커(雅可)를 통해 형상화된다. 쉬팅마이는 난징 혈통의 이국인이고 야커는 난징의 청년이다. 두 인물은 작가의 분신들로 볼 수 있는데, 전자를 통해서는 외부에서 난징을 바라보는 태도를 후자를 통해서는 난징에서 자신을 빼낼 수 없는 숙명을 드러낸다.

작가는 난징의 화려함과 타락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세대이지만 어쩔 수 없는 난징 출신이기에 이 도시의 역사적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량은 『朱雀』의 창작과정에서 중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어야 할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많은 일들은 회피할 수가 없었다. 특히 난징의 1937년, 그리고 반우파, 문혁을 쓸 때 나는 그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에, 당신은 이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젊은 사람인 나에게는 그건 하나의 고통이었다. 당연히 나는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상황을 구성하느냐는 것이었다. 때로는 내가 그 속으로 깊숙이 개입해 들어갔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전개되었다."[38]

---

37) 葛亮·張昭兵, 「創作的可能」, 『青春』 11, 南京市文聯, 2009, pp. 24-27.

38) 鐘明, 「葛亮 : 小說『朱雀』摩挲南京記憶」, http://culture.china.com.cn/book/2010-09/13. "他以在『朱雀』的創作中涉及到的很多重大歷史事件爲例, "很多事情是難以回避的, 特別寫南京1937年那段, 包括反右, 包括文革, 我沒有記憶, 所以這些東西你可能要重新建构, 這對年輕人來說眞是一个考驗。当然我做了很多資料收集的工作, 其實最重要的是怎么建立一个情景, 讓你自己進入到其中, 有些故事是自然而然衍發出來的。"

경계인의 시선으로 난징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연히 이 텍스트가 재현한 난징의 형상은 다른 소설의 난징 형상과는 달라지게 되었다. 사실 긴 역사의 풍랑을 배경으로 하는 『朱雀』은 현대 중국역사소설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서사전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난징대학살, 국공내전, 반우파운동, 문혁, 탕산대지진(唐山大地震), 마오쩌둥(毛澤東)의 죽음, 심지어 톈안먼(天安門)사건 등이 소설의 먼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타의 중국 현당대 소설들과는 달리, 『朱雀』의 역사적 사건은 주인공 특히 여성인물의 개인사를 전개하는 배경이 사용될 뿐이다. 이 텍스트에서 여성들의 삶은 거대역사를 전형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작품의 궁극적인 묘사 대상인 동시에 거대역사를 개인화함으로써 도시 난징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이다. 뿐만 아니라, 거량은 쉬팅마이라는 경계인의 신분으로 난징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상을 전개하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각을 찾아서』가 그랬듯이 난징의 특산품인 옌수이야(鹽水鴨)의 미각을 통해 난징이라는 도시의 기억을 환기한다. 역사의 기억과 청춘의 상상 사이를 오가면서 거량은 개인적인 도시 서사를 시도한다. 거량은 고향 난징의 운명을 혼란한 개인사와 함께 재구성해낸다. 『朱雀』은,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 난징대학살, 반우파운동, 대약진(大躍進), 중·소 분열(中蘇決裂), 난징우떠우(南京武斗), 탕산대지진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히 설명한다. 그러나 그는 소소한 허구와 반복되는 개인들의 운명에 의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거대역사에 의문을 던지고 그 권위에 반항하면서 거대서사를 해체한다.

『朱雀』은 민국시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의 난징을 다루는데, 소설은 현재의 난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쉬팅마이를 통해 본 현재의 난징은 현대와 고전이 융합된 도시다. 전지구화의 추세로 인해 이 도시의 전통은 갈수록 침략당하고 소멸되지만 난징은 여전히 고도의 존엄을 고수하고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 순환되는 숙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퇴폐적인 주변인 예술가와 이국의 지식인 등 다양한 인생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현재의 난징은 초국적이면서도 탈출 불가능한 숙명이 혼합된 혼성적이고 중층적인 도시이다. 작가는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면서 지금의 난징 문제를 부각한다.

거량에 따르면, 전지구화 현상에 노출되어 버린 현재의 난징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난징이 아니라 난징 고유의 역사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난징이다. 작품은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여성의 반복된 운명을 통해 이를 형상화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성의 아이를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잉태하지만 남성들은 무기력하고 퇴폐적이다. 아비는 권위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존재감조차 지니지 못하며 복잡한 관계구도 속의 여성은 여자아이를 양육하게 된다. 소설의 주인공인 세 세대의 여성들은 구체적인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삶을 동일하게 살아간다. 남성·아비는 야커가 대표하듯 재기 넘치지만 퇴폐적이고 암울하여 무기력한 존재인 반면 여성은 강인한 생활력을 지닌 인물들이다. 기녀 청윈허는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후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주부와 엄마로서 그 맡은 바에 충실한 강한 의지의 여성이며 이추와 청난 역시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다. 여성·어미가 퇴폐적이거나 부재하는 남성·아비를 대행하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곳이 난징이라면, 전지구화 현상이 범람하고 있는 현재의 난징은 아비의 무기력·부재의 또 다른 모습이며 그 와중에도 고고하게 유지되는 고도 난징의 품격은 부재하는 남성·아비를 대신하는 여성·어미의 강인함 때문인 것이다.

난징의 양면성·중층성은 세 여성의 운명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난징의 일상과 공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전술한 바와 같이 『朱雀』의 난징 일상 묘사는 거대역사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소설에서 재현되는 일

상은 숙명처럼 반복되는 난징의 양면성과 강하게 묶인다. 거량은 경계인이자 초점화자인 쉬팅마이를 통해, 난징인은 바보처럼 소박하고 축구에 열광하며 북적대고 시끄럽다고 설명한다. 또한 난징인 대부분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지만 미래에 대한 야망이 없기에 생활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올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견실하고 소박한 일상 뒤에는 주체성을 상실한 인물들의 무기력과 향락 탐닉이 자리하고 있다. 일상은 반복에 의해 구축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39] 『朱雀』의 일상 묘사는 세 여성이 상징하는 역사의 순환이라는 메인 플롯(main plot)과 긴밀히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중층적이고 양면적인 일상의 반복이 곧 개인의 역사라고 한다면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 역시 중층성과 양면성의 공간일 터이다. 야커와 주변인물이 생활하는 친화이강 일대는 난징의 표면적인 화려함과 그 이면에 잠재된 어둠을 동시에 지닌 공간으로 묘사된다.

경계인이라는 관찰자의 위치, 거대역사에 대한 저항과 개인 일상의 부각, 부재하는 아비와 어미의 역할 대행 등이 순환 반복되면서 난징이라는 도시의 지역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거량의 소설에서, 도시는 단순한 물리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심리상태, 도덕질서, 태도이며 일련의 의식화된 행위이고 다양한 인간들의 연결망이며 습관과 전통 그 자체가 된다.

왕더웨이(王德威)는 “오랜 난징과 청춘의 난징 사이에서, 역사의 슬픔과 전설적 상상 사이에서, 거량은 자기 세대에 속한 난징의 서사를 쓰는 방법을 찾아냈다”[40]고 『朱雀』을 고평했다. 오랜 역사는 젊은 작가 거량에게 상상의 권리를 주었고 숙명적으로 거량은 난징을 재현해야 했다. 『朱雀』이 재현한 난징의 중층성・혼종성은

---

39)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주류, 1990, p. 35 참조.

40) 王德威, 「歸去未見朱雀航: 葛亮的『朱雀』」, 『当代作家評論』 6, 遼宁省作家協會, 2010, p. 149. “在古老的南京和青春的南京之間, 在歷史憂傷和傳奇想象之間, 葛亮尋尋覓覓, 寫下屬于他這一時代的南京叙事。”

경계인이라는 거량의 태도가 발견한 성격이며, 세계 안의 구석인 집으로 회귀하는 전략을 통해 몽상을 예술적으로 성취해냈다고 할 수 있다.[41]

4. 문화적 상상과 현실적 구성의 교호관계

문학이 재현한 난징 공간은 여타의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면서 현실의 난징 도시 상상과 기획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현실의 난징이 재현한 이런 상상은 또다시 문화적 상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문학(문화)과 현실의 난징 도시는 상호영향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 글이 주목한 민국시대의 난징에 대한 상상 역시 마찬가지다. 문학작품, 영상이 재현한 민국시대 문화가 중국 전역에서 큰 호응을 얻게 되자 난징시는 민국시대 문화유산 개발에 더욱 주력하게 된다. 주즈칭(朱自淸)이 1925년에 쓴 산문 「背影」은 푸커우 기차역(浦口火車站)을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는데, 이 후 이 역은 영화 <孫中山>, <國歌>와 TV드라마 <情深深雨蒙蒙>, <金粉世家>, <北平小姐> 등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등장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러자 난징시 도시계획부(南京市規划局)는 2010년 8월에 이 역을 보존하기 위한 「푸커우 기차역 역사면모 보호계획(浦口火車站歷史風貌區保護規划)」을 선언하고 실행했다.[42]

난징의 유명한 명물거리인 '南京1912'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생된 공간이다. 이 거리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거리였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국문화가 주목을 받게 되자 2004년 12월에 17채의 민국풍 건축군으로 이루어

41) 가스통 바슐라르, 앞의 책, p. 108 참조.

42) 宣婷・李曉倩・吳立偉,『浦口火車站歷史風貌區保護規划研究』,『四川建筑』1, 四川省土木建筑學會, 2012, pp. 10-12.

진 '南京1912'가 재생되었다.[43] 주로 상흔의 도시로 환기되었던 난징은, 문학작품과 영상물 등이 상상하고 재현한 민국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실제 현실 공간에서 다시 재현함으로써 즉 쇠퇴한 채 방치되어 있던 거리를 정비한 후 쑨원이 난징을 중화민국의 수도로 선포한 1912년 1월 1일을 환기시키는 '南京1912'로 이 거리를 명명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이미지·정체성을 재구성하려 한다.

난징시는 이 같은 방향의 도시 재구성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보도된 흥미로운 소식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푸즈미야오 강남공원(江南貢院) 부근에서 18년 동안 성업했던 맥도날드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이다.[44] 이 가게는 1995년 난징에서 처음으로 개점한 맥도날드 가게였는데, 개점일에 판매한 햄버거의 개수는 타 도시 맥도날드 가게의 매상액을 훌쩍 뛰어넘어 당시 중국에서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후 18년 동안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던 이 가게는, 난징의 전통 명물거리인 푸즈미야오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푸즈미야오 공간의 정체성을 재인식하게 되면서 맥도날드라는 초국적 공간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언론은, 가게 주인인 치팡거(奇芳閣)가 이곳을 난징의 전통음식인 친화이분식(秦淮小吃)집으로 변경하여 2014년에 개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지구화의 물결이 거세고 중국 역시 맥도날드가 성행하는 국가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이 같은 변화는 난징의 지역문화를 재조명하려는 난징시의 의지와 난징의 문화변동 양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학(문화)의 도시 상상은 이러한 문화변동의 근원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

43) 劉云, 「当代中國文化休閑街區規模發展的模式探索－－以"南京1912"文化街區爲例」,『藝術百家』3, 江蘇省文化藝術研究院, 2011, pp. 90-93.

44) 薛玲,「南京首家麥当勞將搬离夫子廟曾創內地消費紀录」,『揚子晚報』, 2013. 10.8. http://news.sohu.com/20131008/

문학(문화) 텍스트는, 공유하지 못했거나 표피적으로 제공될 뿐인 특정 도시에 대한 이미지·감각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깊숙이 침투하여 놀라움과 기쁨, 슬픔 등의 감각을 주체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하도록 안내한다. 그리고 이미 고착화되어 버린 기존의 도시지도와 현상계의 소소한 체험을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도시지도를 수정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긴장감을 공급하며, 현실의 도시를 새로이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참고문헌

가스통 바슐라르, 곽광수 역,『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현대세계의 일상성』, 주류, 1990.

葉兆言,『花影』, 南京: 南京出版社, 1994.

_____,『花煞』, 北京: 今日中國出版社, 1994.

_____,『一九三七年的愛情』,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1996.

_____,『捕捉心跳』,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6.

葛亮,『朱雀』, 北京: 作家出版社, 2010.

葉兆言,『一九三七年的愛情·寫在前面』,南京:江蘇文藝出版社, 1997.

_____,「老南京」,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8.

_____,「南京, 歷史和人文」, http://www.longhoo.net/mbjd/2010-06/02/content_ 3280339.htm

_____,「城南」,『南京人·續』,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1.

南京史志編輯部,『首都志』, 南京: 南京古舊書店南京史志編輯部, 1985.

曹文軒,『20世紀中國文學現象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慈祥,「南京影視現象分析与品牌化打造－－關于南京影視創作与傳播情況的調研報告」,『文化產業研究』 5, 南京: 南京大學國家文化產業研究中心, 2012.

鄭晋鳴·陸金玉,「南京：以文化重塑气質」,『南京日報』, 南京日報社,

2010.8.31.
賈儒,「充滿友愛的<南京的那个夏天>: 電影<南京的那个夏天>觀摩研討會記要」,『中國電影報』, 中國電影藝術研究中心, 2010. 1.17.
黃强,「從民間視野反思歷史－－讀葉兆言的"夜泊秦淮"系列小說」,『時代文學』7, 山東省作家協會, 2010.
葛亮・張昭兵,「創作的可能」,『青春』11, 南京市文聯, 2009.
陳嬌華,「解构中蘊涵着怀舊:從愛情書寫角度考察葉兆言的新歷史小說」,『当代文壇』5, 四川省作家協會, 2008.
葉兆言撰文,『老南京』, 南京: 江蘇美術出版社, 1998.
劉莹,「想象与記憶的重奏:葛亮的南京書寫－－以『朱雀』爲例」,『海南師范大學學報(社會科學版)』1, 海南師范大學, 2013.
王德威,「歸去未見朱雀航: 葛亮的『朱雀』」,『当代作家評論』6, 遼宁省作家協會, 2010.
唐偉超・史麗君,「揭秘張愛玲与南京的不了情緣」,『現代快報』, 現代快報社, 2007.10.31.
金萍, 「傳奇才女張愛玲的"南京緣"」, 『金陵瞭望』 12, 南京報業集團, 2004.
宣婷・李曉倩・吳立偉,『浦口火車站歷史風貌區保護規划研究』,『四川建筑』1, 四川省土木建筑學會, 2012.
劉云,「当代中國文化休閑街區規模發展的模式探索－－以"南京1912"文化街區爲例」,『藝術百家』3, 江蘇省文化藝術研究院, 2011.
鐘明,「葛亮：小說『朱雀』摩挲南京記憶」, http://culture.china.com.cn/book/2010 - 09/13.
薛玲,「南京首家麥当勞將搬离夫子廟曾創內地消費紀录」,『揚子晚報』, 2013.10.8, http://news.sohu.com/20131008/
葛亮,「2010香港書展葛亮精彩演講」, http://book.sohu.com/ 2010.07.26.

“Republic Culture(Republic Style)” from among the Nanjing Cultural Traditions

Bark, Jeong-Hee

What is important for urban study through cultural context is not how realistically the work has reproduced the city, but the mutually influencing relationship of the city and the work and its effect, or in other words, how the city affects the production of the text and how the imagination and imaginative method of the artist regulates the reproduction aspects of the city, as well as how the urban imagination embodied as the work intervenes in the actual reproduction of the city.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ext reproducing the urban imagination and reality of Nanjing, considered how the urban memory of Nanjing is drawn up and how this emphasizes a certain aspect of nanjing, and how the cultural identity of Nanjing is composed through the crowding and layering of urban memories. Through this, the paper looked into the urban identity of Nanjing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Beijing and Shanghai.

Key words: urban study, urban imagination, Nanjing, republic culture, layering, new historical fiction.

박정희
소속: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주소: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501-25 금정리치빌 A동 702호
(우: 609-840)
전화번호: 010-3203-0158
전자우편: barkxin@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06일 투고하여
2013년 12월 0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31일 게재 확정함.